

## 정유자본 『周易傳義大全』의 간행과 교정

The Printing and Proofreading of Jeongyujabon *Juyeokjeonuidaajeon*

장 원 연 (Jang, won-yeon)\*

### ◁ 목 차 ▷

- |             |                  |
|-------------|------------------|
| 1. 서론       | 5. 『周易傳義大全』의 간행  |
| 2. 활자인쇄와 匠人 | 6. 『周易傳義大全』 교정쇄본 |
| 3. 금속활자의 조판 | 7. 결론            |
| 4. 교정쇄      | <참고문헌>           |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의 금속활자인쇄기술에 있어서 조판교정에 관한 것이다. 서책 간행시 교정은 인출 전 원고의 교정과 인출과정에서의 교정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인출교정은 匠人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활자의 조판을 담당하는 군자장의 기술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인출시 교정에 관해서는 시험 인출해서 교정을 표시한 교정쇄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으나, 교정쇄는 인출이 끝나면 대체로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 되어 완전한 모습을 갖춘 교정쇄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 발견된 1793년 정유자로 간행한 『周易傳義大全』의 교정쇄본 두 책은 인출시 교정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조선후기 금속활자 인쇄의 교정수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교정쇄본 『주역전의대전』은 1793년 정유자로 간행한 『주역전의대전』의 再見에 해당하는 인출지를 모두 모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전체 23권 14책 중 제1책(권1~2)과 제13책(권23~24)에 해당하며, 매장마다 붉은 색으로 교정을 지시하고 있다. 권1에 표시된 1,600건의 교정내용에 근거하여 조판교정의 양상을 살펴보면, 활자의 높이와 수평이 고르지 않아 교정된 것이 825회로 전체 교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자가 좌우로 기울어져서 교정을 지시한 것이 513회(32%)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오자, 탈자, 흔들려 인쇄된 글자 등의 교정내용이 확인된다. 이 책이 전체 24권과 총목 1책을 포함해서 권1과 비슷한 수준의 교정이 지시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주역전의대전』의 再見에만 무려 40,000여 자에 대한 교정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조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수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금속활자인쇄에서 조판의 어려움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활자의 조판은 활자를 고르게 조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으며, 또한 조판은 활자의 모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조선후기로 갈수록 활자의 모양을 규격화하여 인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要語: 『周易傳義大全』, 校正, 再見, 組版, 校正刷, 均字匠

\*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jwy4075@korea.kr)

접수일: 2014년 9월 15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proofreading the typeset in Korea's metal type printing techniques. In publishing books, proofread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roofreading the manuscript before printing and proofreading in the process of printing. And the proofreading of printing is the part that particularly demands the technical skills of master craftsmen, especially Gyunjang in charge of typesetting. The best way to understand proofreading at printing is to examine the proof sheet marking the proofreading after the trial printing ; however, once the proof sheet is printed out, most of them get to be discarded or reused for another usage, so it is not easy to find a proof sheet that is complete. Fortunately, however, the recently found two volumes of proof sheet edition of *Juyeokjeonuidaejeon* published in Jeongyuja in 1793 provide crucial data that allow u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roofreading the metal type printing during late Chosun. The proof sheet edition of *Juyeokjeonuidaejeon* is a volume collecting all the printed paper corresponding to the second viewing of *Juyeokjeonuidaejeon* issued in Jeongyuja in 1793. They correspond to the first (Vol. 1~2) to the thirteenth book (Vol. 23~24) among total 23 volumes and 14 books. And each page refers to proofreading with red color.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n the aspects of proofreading the typeset based on the 1,600 cases of proofreading marked in Vol. 1, those proofread for the uneven height or horizon of the type are 825 cases which form over 50% of the total proofreading. And those ordered to be proofread for the letters leaning towards left and right are 513 cases (32%) which form the second most. Other than these, there are also cases of proofreading for misprinted, omitted, or blurred letters. If we suppose that this book ordered proofreading equivalent to the level of Vol. 1 including total 24 volumes and 1 complete catalogue, we can estimate that only on the second viewing of *Juyeokjeonuidaejeon* there must have been proofreading for up to 40,000 or so letters. And since at the first viewing, there must have been much more corrections than this, so we can assume the difficulty of typesetting in metal type printing. In the typesetting of the metal type, setting the type evenly is the most difficult and important task to do. Also, it has been learned that typesetting is influenced by the shape of the type most greatly. Therefore, they tried to standardize the shape of the type during late Chosu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inting.

Key words: *Juyeokjeonuidaejeon*, proofreading, second viewing, typesetting, proof sheet, Gyunjang

## 1. 서론

우리나라 금속활자인쇄술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먼저 발명되어 상용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는 제한된 독서층의 구조이다. 금속활자 인쇄의 가장 큰 특징은 少量多種의 책을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 우리나라의 독서구조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의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간행되는 많은 책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금속활자를 이용한 출판이 효과적이었다. 둘째는, 서적보급을 통한 통치수단을 위한 출판방법의 필요성이다. 금속활자인쇄는 신속한 출판에 장점이 있는 반면 한 번에 많은 부수를 인출할 수 없고, 게다가 국가 전체의 수요를 중앙에서 전부 감당하기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상과 이념을 통일하여 중앙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적의 보급을 통한 교육과 인재양성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중국에서 전래되는 주요한 서적과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사서삼경과 주자·퇴계와 같이 지표로 삼을 만한 인물들의 문집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지방에 보급하고, 지방에서는 이를 다시 목판에 새겨 인출하여 서원, 향교, 문중 등에 보급하는 출판보급 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금속활자의 발명과 상용화는 고려~조선시대의 서적보급을 통한 文治의 중요한 역할을 하여 끊임없는 인쇄술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조선전기 금속활자 인쇄는 활자의 주조에서부터 인출에 이르기 까지 모든 작업은 국가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 주자소에서 활자를 주조하고 교서관 등 출판기관에서 서적을 인출하여 지방에 보급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활자의 주조는 1403년 계미자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여 50여종의 활자가 주조되었다. 활자의 크기와 서체는 당시 유행을 따르거나 왕의 의지에 따라 바뀌기도 하였으나 활자의 모양(뒷면)은 조판에 적합한 형태로 개량발전 되었다. 금속활자의 인출은 무엇보다 조판이 고르지 못하면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판에 적합한 모양으로의 개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실록과 鑄字跋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수량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하였다. 재미자는 활자의 뒷면 네모서리를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고착식의 활자판에 밀랍을 깐 후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밀랍의 응고력이 약해서 인쇄도중 자주 흔들리고 기울어져 하루에 겨우 數紙를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1)</sup> 그러나 1420년 경자자에 이르러서는 활자모양을 정방형의 평면체로 만들어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만을 이용한 조립식 조판을 하여 인출량을 하루에 20여지로 증대시켰으며,<sup>2)</sup> 또 1434년 갑인자에 이르러서는 40여지로 늘어나는 등<sup>3)</sup> 조판기술이 계속 발전하였다.

조판의 방법은 초기 재미자 인출에 밀랍을 이용한 조판에서 대나무와 파지 등을 이용한 조판, 즉 活版이 일체형에서 조립식으로 변천 발전하였는데, 밀랍을 이용한 조판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이므로 제도가 정밀하지 못하여, 인쇄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蠟을 板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추어 꽃았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래 柔하므로, 植字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두어 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뚤어져서, 곧, 따라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sup>4)</sup>

이 기록은 활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 밀랍의 응고력이 약해서 조판된 활자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활자와 활자 사이에 대나무쪽으로 메워 활자를 고정시키는 조립식조판 방식이다.

板을 만들고 鑄字를 부어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않고 많이 박아 내어도 글자가 비뚤어지지 않으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sup>5)</sup>

1) 『세종실록』 세종 3년 3월 24일.

2) 『세종실록』 세종 4년 10월 29일.

3) 『세종실록』 세종 16년 7월 2일.

4) 『세종실록』 세종 16년 7월 2일.

5) 『세종실록』 세종 16년 7월 2일.

고 하여, 갑인자에 이르러 전혀 밀랍을 쓰지 않고 완전한 조립식조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립식조판에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식은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인쇄를 시도하는 사람이 활자를 가지런히 식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판 위에 인납을 끓여 넣고 거기에 활자를 붙이게 되었다. 이리므로 해서 경자자 같은 활자는 끝이 못처럼 뾰족하였다. 그 뒤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활자 사이의 공간을 대쪽으로 메우는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니 인납을 끓여 붓는 번거로움이 없게 되었다. 비로소 사람의 생각이 무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sup>6)</sup>

각종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금속활자의 구조와 조판 등에 관하여는 지난 2007년부터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금속활자 복원사업>을 통해 많은 연구 성과를 이뤄 놓았다.<sup>7)</sup> 특히 활자의 구조방법에 있어서는 고려활자의 모양과 실물 활자의 분석을 통해 활자가 상하 분리되어 구조되었음을 확인하였고,<sup>8)</sup> 조판기술이 활자의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으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은 기본적으로 활자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금속주형물의 제조 기술은 이미 동전이나 종을 주조하는 등 그 기술이 일반화 되어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활자의 구조는 조판에 적합한 모양의 활자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 만들어진 활자를 얼마나 정교하게 조판 할 수 있는가는 인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임으로 이들 업무를 담당한 장인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6) 성현, 『용재총화』 권7.

7) 『갑인자와 한글 금속활자』 결과보고서(2007), 『조선시대 인쇄출판정책과 역사발전』 학술자료집(2007), 『조선전기 한국의 금속활자』 결과보고서(2008), 『조선시대 중앙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학술자료집(2008), 『조선후기 한국의 금속활자』 결과보고서(2009), 『조선시대 지방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학술자료집(2009), 『조선시대 한글 금속활자와 철활자』 결과보고서(2010).

8) 남권희, “證道歌字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 『서지학보』 제36집(2010).

## 2. 활자인쇄와 匠人

서책 간행에 있어서의 교정을 크게 원고와 인쇄교정으로 구분한다면, 금속활자의 조판 교정은 인쇄교정에 해당하며 장인들의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즉, 원고가 마련되면, 간행물의 완성은 오로지 장인들의 몫이다. 장서각 소장의 『侍講院冊役所日記』에는 監董官이하 書吏, 使吏, 房直, 使喚軍을 한 줄로 나열하고, 이어서 寫字官, 畫員, 唱準, 計士, 粧冊諸員, 印出匠, 刻字匠, 守藏諸員, 均字匠, 校正匠, 小木匠, 除刻匠, 粧頭匠, 多繪匠, 頭錫匠, 推造匠, 分類匠, 搗砧匠 등의 명단을 두 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조판인쇄와 관련하여 여러 기능의 기술자들이 동원되는 바 활자를 관리하고 가려내는 수장제원, 원고에 따라 활자를 가르고 上板 작업을 하는 창준과 교정창준, 철우리를 만드는 소목장, 철우리 내에 활자를 배열하고 높이와 위치를 맞추는 균자장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인은 균자장이라 할 수 있다. 균자장 외에 다른 장인이 모두 의미 있지만 균자장은 무엇보다도 활자인쇄와 목판인쇄를 구분할 수 있는 장인이면서 활자인쇄의 핵심 중의 하나인 조판작업을 담당하는 장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특별함을 지닌다. 그러나 균자장을 비롯한 활자인쇄 장인들에 관해서는 문헌의 기록을 정리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기초자료 제공 정도의 논문 몇 편이 발표되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9)</sup> 이들 장인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신분의 제약 등으로 그들의 활약과 업무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는 기록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을 대하면 놀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인쇄 장인들의 기술과 노고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목판본의 경우 각수의 판각기술이 정교한 인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금속활자 인쇄에서는 조판을 담당하는 균자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9) 옥영정, “인쇄판공의 활자인쇄장인,”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 옥영정, “의례의 서지학적 연구 성과와 편찬·간행 관련 기록의 활용.”

조판의 대부분은 균자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활자의 높낮이, 글자사이 상하 좌우의 간격, 비뚤어짐 방지 등 均字의 과정은 인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본의 정교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인쇄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장인이 있지만, 활자인쇄에서 균자장이 단연 돋보이는 이유는 활자로 인쇄된 책의 형태적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활자조판이라는 범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판짜기에 동원되는 균자장의 역할이 활자를 관리하여 필요시 찾아내는 수장제원, 조판대, 철우리, 동인찰을 만들고 다듬는 사람, 빈 공간을 채울 竹木, 파지의 공급, 부족한 글자를 임시로 만드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균자장의 역할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하였음은 論賞의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三淵 金昌翁(1653~1722)이 부친 金壽恒의 문집 인쇄를 마치고 나서 참여한 장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때 그 공과 나이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였는데, “... 功論을 하면 균자장이 최고요, 각자장, 인출장이 다음이다”<sup>11)</sup>라고 하여 균자장의 역할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거워 간혹 교정쇄에는 교정자와 균자장의 이름까지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1668년에 주조한 무신자로 간행한 인본의 교정쇄 여백에 붉은 색으로 기록한 “校正 高奉乾”, “均字 李厚九”는 활자인쇄에 있어 인쇄상태를 점검하는 교정자와 균자장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한편 인쇄장인의 상벌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중종 때인 『大典後續錄』에는 감인관, 감교관, 창준, 수장, 균자장에게 한 권당 한 자의 착오가 있으면笞 30에 처하고 한글자마다 한 등을 더하여 그 자수에 따라 治罪하고 인출장은 한 글자가 먹이 진하거나 희미한 것이 있을 때 같은 벌을 내리며, 관원은 5자 이상이 틀렸을 경우 파직시키고 창준이하 장인은 태를 때린 뒤에 50일의 근무일

10) 옥영정, “인쇄관청의 활자인쇄장인,”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207.

11) 『三淵集』 卷24 雜著, <先集印役匠人宴飲時小記>.

수를 깎는 벌칙까지 규정하였다.<sup>12)</sup> 이처럼 인쇄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인출 장인들이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쇄장인들 중 특히 군자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조판과 조판교정에 대하여 정유자본 『주역전의대전』의 교정쇄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교정쇄를 모아 책으로 엮은 것으로 교정내용의 수치화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며, 조판에 어떤 부분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줄 것이다.

### 3. 금속활자의 조판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종년간 갑인자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는 발전된 모습을 간행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주조와 조판의 기술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판작업은 조선후기 정조년간 까지도 시간과 공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즉, 활자와 인쇄도구, 먹, 종이 등 물리적인 부분과 장인들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규격화되지 않은 활자의 크기와 형태는 여전히 완벽한 인출을 위한 조판에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실록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조판의 어려움을 지적한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정조실록』에는,

“대체로 전후로 주조한 활자의 銅體가 일정하지 않아서 인쇄하려면 젖은 종이를 써서 고르게 붙이고 한 판을 찍을 때마다 별도로 몇 사람을 세워서 朱墨으로 활판의 형세에 따라 교정을 하게 하는데도 오히려 비뚤어지는 염려가 있었으며 걸핏하면 시일이 걸리곤 하였다”<sup>13)</sup>

고 하였다. 즉 기존 활자의 크기, 높이, 모양 등 고르지 못한 활자를 조판하는

12) 『大典後續錄』 권3 禮典 雜令條.

13) 『正祖實錄』 正祖 20年 3月 癸亥條.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하여 그 글자가 반드시 바르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교정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최근 문헌의 기록과 주조·조판실험 등을 통하여 조판이 매우 어렵고, 인쇄를 위한 중요한 작업임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단연 활자의 외형적인 요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활자본 교정쇄를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자의 모양, 즉 활자의 높이와 수평 등을 왜 규격화 하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금속활자 인쇄술이 고도로 발달한 조선후기 정조대 까지도 대부분의 활자는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음은 혹 이러한 요소들이 조판인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서 일까? 그러나 실록 등 많은 문헌의 기록에서 조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게다가 한번 제작된 금속활자는 수 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인쇄 할 때마다 조판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활자 모양의 불규칙에 대해서 주조기술의 부족으로 속단하기에는 성급함이 있다. 아래는 현전하는 실물 금속활자의 측면높이를 비교한 것으로 후기로 갈수록 대체로 높이가 비슷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19세기 말 서양에서 도입된 신식활자 인쇄방법은 기계화 시설을 갖추어 대량생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의 첫 번째 요건은 규격화를 꼽을 수 있다.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역으로 말하면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대량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근대인쇄기술이 비록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긴 하나 인쇄물을 찍어내는 공정은 전통방식과 동일하다. 신식활자 인쇄에서도 전통의 장인인 군자장에 해당하는 조판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조판의 기술적인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불규칙한 형태의 활자를 쪼은 종이, 공목 등을 이용해서 높낮이와 기울기 등을 정교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자장의 중요한 역할이라면, 조판공은 전통시대보다 훨씬 많아진 다양한 종류의 활자와 부호, 장식 소품 등을 이용해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격화된 활자의 사용으로 군자장이 어렵게 여겼던 조판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던 실물활자는 육안으로

도 그 불규칙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그럼에도 조선후기 까지 활자 형태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었던 것은 조판기술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교서관인서체자(1684) 측면



무신자한글활자(1693)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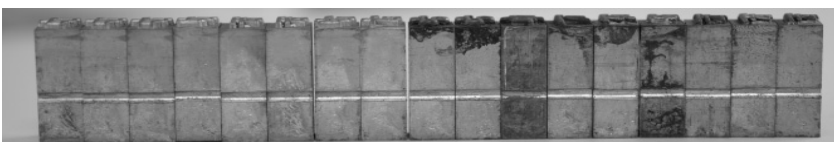
후기교서관인서체자(1723) 측면



임진자(1772) 측면



정리자(1796) 측면



납활자(20세기) 측면<sup>14)</sup>

그러나 정조 말에 이르면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활자모양의 규격화를 시도하였다. 1795년 주조된 초주정리자 주조의 주된

14) 납활자는 글자 크기에 상관없이 높이가 모두 동일하며, 호수별(초호~7호) 글자크기 또한 일정하게 규격화되어 있다.

배경은 기존의 활자가 크기가 고르지 않아 인쇄에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일성록』의 기록에 의하면,<sup>15)</sup> 대체로 이전의 활자들은 모양이 불규칙하여 인쇄를 하려면 젖은 종이를 고르게 붙여야 하고 한 판을 인쇄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朱墨으로 교정을 하였으나 그래도 기울고 흔들림이 있어 시일을 소비하였다. 때문에 監印諸臣들이 건의하여 생생자와 정리자를 주조하였는데, 정리자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어 털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여, 이전의 활자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여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 배가 넘었다고 하였다. 즉 생생자와 정리자는 고르고 반듯하며 새기고 주조한 것이 정교하여 이전의 활자와 비교하면 젖은 종이를 고르게 붙여야 한다는 글자가 빠들거나 흔들리게 인쇄될 근심이 없다는 것이다. 활자의 배열도 간편하고 빠르며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어서 중국의 취진판보다 도리어 더 나아서, 진실로 책을 간행한 이래로 드러나지 않았던 비법이 모두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활자 조판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규격화된 활자의 생산으로 다소 정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교정쇄

금속활자판은 교정과 인출이 끝나면 곧바로 해체되어 다음 판의 조판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조판된 활자판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조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시험인출한 교정쇄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교정쇄는 조판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판을 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며, 조판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등 완성된 인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출과정의 많은 상황을 교정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정쇄 또한 인출이 끝나면 대체로 없애버리거나 책표지를 만들 때 배접지로 사용하여 간간히 낱장의 일부가 확인될

15) 『일성록』 정조 20년(1796) 3월 17일.

뿐이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최근에 교정기록이 있는 정유자본 『周易傳義大全』의 교정쇄 2책이 발견됨으로써 금속활자본 간행 시의 교정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목판인쇄이거나 활자인쇄든지 대량생산의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인쇄에서는 반드시 교정과정을 거치는데, 원고완성 이후 인쇄단계에서는 初見, 再見 등으로 부르며 시험인쇄를 통해 완벽한 조판인쇄상태가 되었을 때 필요수량만큼 인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시험 인쇄된 인출지를 ‘교정쇄’라 부르며, 교정과 시험인출을 반복한 차례에 따라 初見紙, 再見紙 등으로 부른다.

## 5. 『周易傳義大全』의 간행

『주역전의대전』은 중국 명나라 胡廣(1370~1418) 등이 편찬한 책이다. 1414년(영락 12) 明 成祖는 翰林學士 胡廣 및 侍講 楊榮·金幼孜 등 42인에게 『五經大全』·『四書大全』·『性理大全』의 편찬을 명하여 이듬해인 1415년(永樂 13) 9월에 완성토록 하였는데, 『주역전의대전』은 『오경대전』의 제일 처음에 수록되어 있다. 편제는 서론에 해당하는 권수 및 본문에 해당하는 上經(乾卦~離卦)·下經(咸卦~未濟卦)의 經文, 彖傳·象傳·文言傳과 繫辭傳·說卦傳·序卦傳·雜卦傳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가운데 上·下經에는 64괘의 순서에 따라 經文 아래 彖辭·象辭 및 程伊川의 『伊川易傳』과 朱子の 『周易本義』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아래 宋·元·明代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기록한 細註가 달려있다. 大全本の 경서는 중국에서 간행된 직후인 태종 말년에 조선에 수입되어, 세종 연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 본 『주역전의대전』은 1793년(정조 17) 활자로 간행된 판본이다. 이 판본의 가장 큰 특징은 24권말에 국조 이래 銅活字 鑄造의 연혁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 의하면 조선은 개국이후 여러 차례 동활자를 주조했는데, 1434년(세종 16)에 이를 집대성하여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서 활자들이 마멸됨에 따라 1772년(영조 48)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당시 교서관에 명하여 갑인자를 본으로 壬辰字 15만자를 주조하여 『經書正文』 등을 인쇄하였고, 즉위직후인 1777년(정조 1)에는 關西 지방에서 丁酉字 15만자를 제작하여 『八子百選』 등의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丁酉字를 이용하여 經書를 印行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기록만으로는 본 판본에 해당하는 서적들의 간행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는 1793년 여름에 교서관으로 하여금 사서삼경을 인쇄하도록 하여 이듬해인 1794년 1월 24일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었고 이를 史庫 등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sup>16)</sup> 이때 간행된 사서오경 가운데 일부가 바로 上記한 인본을 비롯한 20종의 『주역전의대전』으로 여겨진다.

본서의 간행에 사용된 정유자는 정조가 1777년 8월 3일에 平安監使였던 徐命膺에게 명하여 箕營에서 갑인자로 15만자를 더 주조하게 한 동활자이다.<sup>17)</sup> 정조가 동궁의 시절 때인 1772년에 15만여 자의 임진자를 초주갑인자로 주조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국왕으로 등극하면서 신임이 두터운 서명응에게 加鑄를 명한 것이다.<sup>18)</sup> 그러나 1857년 8월에 주자소 화재로 정유자를 포함한 주자소에 보관 중이던 활자가 모두 소실되었다. 화재로 소실된 다른 활자는 다음해에 다시 주성하였으나 정유자는 교서관에 보관하였던 임진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조하지 않았다. 임진자와 정유자는 각각 갑인자를 개주한 오주, 육주갑인자로 서체와 활자의 모양, 크기 등 유사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16) 『정조실록』 正祖18年, 1월 24일.

17) 『정조실록』 正祖元年 丁酉 8月 3日. 丙申條.

18) 김성수, “壬辰字와 丁酉字의 복원을 위한 鑄造 및 組版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 (고인쇄박물관, 2007), 376.

## 6. 『周易傳義大全』 교정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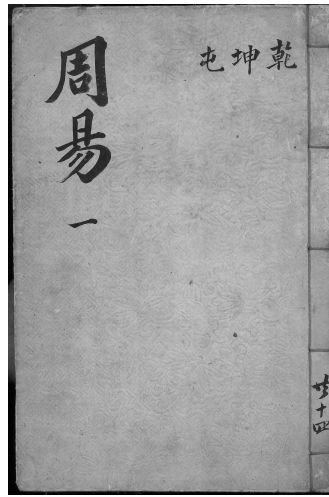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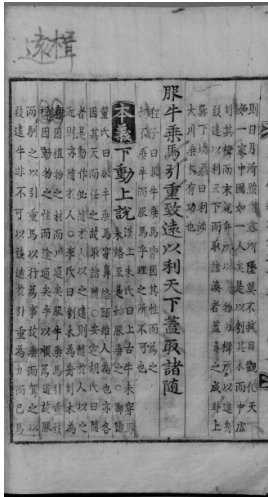
<서지사항>

丁酉字本, 1793년 刊 / 책크기: 33.3×21.6cm, 광곽: 24.7×16.6cm, 10행18자 / 사주단  
변, 상하내향 4판화문어미 / 전체 14책 중 제1,13책 / 再見 교정쇄본

본 『주역전의대전』 2책은 1793년(정조 17) 여름에 교서관으로 하여금 사서삼경을 인쇄하도록 하여 이듬해 1794년 1월 24일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된 사서오경 가운데 하나의 교정쇄에 해당하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고서의 경우 책을 간행할 때 고친 부분이 표시된 교정쇄는 없애버리거나 종이가 혼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의 두꺼운 책 표지를 만들 때 배접지로 사용된 예를 간혹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정쇄를 전부 모아서 별도로 책을 만들었다거나 특히 이 책과 같이 금속활본의 매장마다 일일이 교정지시를 하고 본문 내용의 오탈은 물론 희미한 글자, 좌우로 기운 글자, 자간사이의 거리, 먹이 뭉쳐져 인출된 글자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수정을 지시한 책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 이 책 본문에 교정 지시된 글자 중에는 얼핏 무엇을 교정하라는 것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 교정쇄본의 발견으로 인하여 조선후기 중앙의 금속활자본 교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유자본 『주역전의대전』은 전체 24권 14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교정본은 그 중 권1~2와 권23~24에 해당한다. 책의 크기는 세로 33.3cm, 가로 21.6cm이며, 정유자로 간행된 본문의 매장에 朱墨으로 일일이 교정을 지시하였고, 書根 부분이 묶여 있어 다 확인할 수 없으나 ‘再’라고 쓰여진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두번째 시험 인출한 再見紙임을 알 수 있다.



『周易傳義大全』校正刷本

인쇄면에 수정 지시된 글자를 통해 조판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교정을 거친 후 두 번째 교정단계임으로 내용상의 큰 부분에 대한 교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확인되는 교정 대상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한 글자 전체가 흐리게 인쇄된 경우
- ② 글자의 상하좌우 중 한쪽 부분이 흐리게 인쇄된 경우
- ③ 주변 글자에 비해 진하게 찍힌 글자
- ④ 좌우로 기울어진 글자
- ⑤ 좌우상하로 치우친 글자
- ⑥ 먹이 묻쳐져 인쇄된 글자
- ⑦ 흔들린 글자
- ⑧ 오자
- ⑨ 탈자
- ⑩ 너털이가 남은 글자

이상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조판상의 원인은, ①은 활자가 주변 글자에

비해 낮게 조판되었기 때문이며, ②는 식자된 활자의 글자 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한쪽이 낮아진 경우며, ③은 활자가 주변 활자에 비해 솟아있어서이며, ④는 활자가 기울어져 나타나는 현상이고, ⑤는 계선 사이와 상하 활자간 간격이 고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⑥은 활자에 먹이 많이 묻었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활자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아 획 사이에 굳어진 먹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⑦은 견고하게 조판되지 않아 활자가 흔들린 경우이며, ⑧은 글자를 착각하여 잘못 식자한 경우로, 확인된 오자의 사례를 보면 글자의 아래 위를 혼돈한 上 → 下, 모양이 비슷한 燮 → 變, 음이 비슷한 利 → 而와 같은 것이 대부분이다. 간혹 아래위 글자가 바뀌었거나 중복 植字한 경우도 있다. ⑨는 조판이 안 된 경우며, ⑩은 활자의 고정을 위해 사용된 대나무나 파지 등에서 묻어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교정의 대상이 된 위의 열 가지 중 ①, ②, ③은 전체 교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활자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높이와 수평을 고르게 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전하는 실물 활자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높이와 윗면의 수평 등 모양이 고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한쪽이 기울거나 뒷면의 터널구조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위에 열거한 조판상의 교정내용들은 매번 인쇄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정을 지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⑥, ⑦, ⑩의 수정은 글자 우측에 朱墨으로 세로로 선을 그어 교정의 대상임을 표시하였다. 표시된 부분에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는 교정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다. ④의 교정지시는 대체로 기울어진 반대방향으로 사선을 그어 바로 세울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페이지에서는 기운 방향으로 선을 그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 명이 교정하여 방향을 다르게 한 듯하다. 그러나 이 역시 육안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선의 방향 때문에 수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⑤의 경우 좌측으로 치우친 글자는 글자 우측에 ‘丿’를, 우측으로 치우친 글자는 글자 좌측에 ‘㇚’를, 위로 치우친 경우는 글자 아래에 ‘㇚’, 아래로 치우친 경우는 글자 위에 ‘㇚’를

표시하여 이동을 지시하였다. ⑥과 ⑩은 먹이 묻쳐진 부분에 ‘ㄴ’과 같이 표시하여 제거하도록 하였고, ⑧은 오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여백에 바꾸어야 할 글자를 썼으며, ⑨는 해당 위치에 붉은 색으로 글자를 써 넣었다.

활자에 새겨진 글자는 좌우가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거꾸로 식자되어 인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대산본 『成宗大王實錄』은 교정쇄를 모아 엮은 것으로 여기에 뒤집혀진 글자 ‘’를 ‘’로 바로 잡으라는 교정지시를 볼 수 있다. 『주역전의대전』 교정쇄본 역시 그러한 실수가 많았을 것이나 初見 때 모두 바로잡았을 것이다. 완성본인 금속활자본 『直指』에서도 ‘日’자가 거꾸로 식자된 부분이 확인된다.

한편, 권1의 31장은 목판으로 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 후 인출된 인본에서는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을 보면, 아마 31장이 처음에 조판되지 않았다가 교정시 확인되어 다시 금속활자로 인출한 것이거나, 혹은 교정쇄를 모두 책으로 엮어서 한 질을 갖추기 위해 빠졌던 부분을 보충한 것일 수도 있다.

『周易傳義大全』의 주요 수정 사례

|        |        |        |         |        |
|--------|--------|--------|---------|--------|
|        |        |        |         |        |
| 낮게 조판  | 좌우 낮음  | 위쪽이 낮음 | 아래쪽이 낮음 | 전체가 높음 |
|        |        |        |         |        |
| 좌로 기울  | 우로 기울  | 먹묻침    | 아래로 치우침 | 위로 치우침 |
|        |        |        |         |        |
| 우로 치우침 | 좌로 치우침 | 흔들림    | 탈자      | 너덜이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실물 금속활자들을 보면 대체로 그 높이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인쇄를 위한 활자판을 짤 때 활자의 높이를 고르게 하기 위해 낮은 활자에는 종이나 얇은 나무를 깔아서 수평을 맞추고, 동시에 좌우 상하 간격을 고려해서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공목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인쇄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금속활자 한 판을 조판하여 인쇄하는데 어느 정도의 교정이 이루어졌을까? 본격적인 인쇄를 위한 만족할 만한 시험인출이 이루어지려면 대체로 초견, 재견, 삼견의 세 번의 교정은 거쳐야 한다. 다음은 『주역전의대전』 교정쇄 권1의 매 장에 수정 지시된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周易傳義大全』 권1의 교정내용과 교정 횟수

| 張次 | 호림 |   |   |   |   |    | 진합 | 기움 |    | 먹뭉침 | 치우침 |   |   |   | 흔들림 | 誤字         | 脫字   | 너덜이 | 확인 불가 |
|----|----|---|---|---|---|----|----|----|----|-----|-----|---|---|---|-----|------------|------|-----|-------|
|    | 全  | 左 | 右 | 上 | 下 | 불량 |    | 左  | 右  |     | 上   | 下 | 左 | 右 |     |            |      |     |       |
| 1  | 1  | 1 |   |   |   | 1  |    | 2  | 3  | 7   |     |   |   |   |     | 爰→變        |      | 1   |       |
| 2  | 3  |   | 1 |   |   | 18 |    | 3  | 5  | 2   |     |   |   |   |     |            |      |     |       |
| 3  | 2  | 1 | 4 | 1 |   | 4  |    | 2  | 2  |     |     |   |   |   |     |            |      |     |       |
| 4  | 8  | 3 | 2 | 1 |   | 26 |    | 1  | 5  | 3   |     |   |   |   |     |            |      |     |       |
| 5  | 3  | 1 |   |   | 1 | 7  |    | 2  | 12 |     |     |   | 1 |   |     | 生→主        |      |     | 1     |
| 6  | 2  | 2 | 3 | 1 |   | 7  |    | 1  | 2  | 6   |     |   |   |   |     |            |      |     |       |
| 7  | 3  |   |   |   | 3 | 1  | 3  | 3  | 8  |     |     |   | 3 |   |     |            |      |     |       |
| 8  | 2  |   |   |   | 1 |    | 3  |    | 10 | 3   |     |   |   |   |     |            |      |     |       |
| 9  | 2  | 1 |   |   | 1 |    | 8  |    | 6  | 7   | 1   |   | 2 |   |     |            |      |     |       |
| 10 | 4  |   | 1 | 4 |   | 11 |    | 7  | 6  | 3   |     |   | 1 |   |     |            |      |     |       |
| 11 | 7  |   |   |   | 1 | 1  |    | 1  | 3  | 5   |     |   |   |   |     |            |      |     | 1     |
| 12 | 8  | 1 | 2 | 3 | 1 | 5  | 2  | 3  | 17 | 4   |     |   |   | 1 |     |            |      |     | 1     |
| 13 | 17 |   | 4 | 1 | 1 | 6  |    | 2  | 7  |     |     | 2 | 1 | 1 |     |            |      |     | 1     |
| 14 | 2  | 1 | 3 |   |   | 4  |    | 2  | 5  |     |     |   |   |   |     |            |      |     | 8     |
| 15 | 4  |   | 1 |   |   |    |    |    |    | 1   | 1   |   |   | 1 |     |            |      |     |       |
| 16 | 4  | 1 |   |   | 1 | 2  |    |    | 1  | 2   |     |   |   |   |     |            |      |     |       |
| 17 | 22 | 1 | 1 | 2 |   | 8  |    | 5  | 10 | 4   | 2   |   | 2 |   |     |            |      |     |       |
| 18 |    | 1 |   |   | 1 |    |    | 1  | 2  | 2   |     |   |   | 1 | 1   |            |      |     |       |
| 19 | 7  | 1 |   |   | 1 | 1  | 4  | 1  | 3  | 1   |     |   |   |   |     | 好→如        | 變    |     |       |
| 20 | 1  | 1 |   |   | 1 |    |    | 1  | 2  | 1   |     | 1 |   | 1 |     |            |      | 2   |       |
| 21 | 7  | 5 | 2 |   |   | 2  |    | 1  | 4  | 5   |     |   |   |   |     |            | 象, 窮 | 3   |       |
| 22 | 5  |   |   | 1 | 3 | 1  | 3  | 1  | 4  | 5   |     |   |   | 1 |     | 天→人<br>行→說 | 爻    | 1   |       |
| 23 | 1  |   | 2 |   |   | 3  |    | 2  | 1  | 3   |     |   |   |   |     | 敕→粒        |      |     | 1     |
| 24 | 1  | 1 |   |   |   |    |    | 2  | 8  | 2   | 1   | 1 | 1 |   |     |            |      | 1   |       |
| 25 | 4  |   |   |   |   | 6  |    | 4  | 9  |     |     |   |   | 1 |     |            |      |     |       |
| 26 | 2  |   |   | 1 | 1 | 13 |    | 4  | 13 | 2   |     |   |   |   |     |            |      |     |       |

정유자본 『周易傳義大全』의 간행과 교정

| 張次 | 호림  |    |    |    |    |     | 진합 | 기움  |     | 먹뭉침 | 치우침 |    |    |    | 흔들림 | 誤字         | 脫字 | 너덜이 | 확인<br>불가 |
|----|-----|----|----|----|----|-----|----|-----|-----|-----|-----|----|----|----|-----|------------|----|-----|----------|
|    | 全   | 左  | 右  | 上  | 下  | 불량  |    | 左   | 右   |     | 上   | 下  | 左  | 右  |     |            |    |     |          |
| 27 |     |    |    |    |    |     |    | 4   | 16  |     |     |    |    |    |     |            |    |     |          |
| 28 | 3   | 1  |    | 2  | 1  | 1   |    | 1   | 5   | 6   | 1   |    |    |    |     |            |    |     |          |
| 29 |     |    |    |    |    |     |    | 5   | 14  |     |     |    |    |    |     |            |    |     |          |
| 30 | 7   | 1  |    |    |    | 5   |    | 2   | 3   | 1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32 | 1   |    |    |    |    | 2   |    | 4   |     | 2   |     |    |    |    |     |            |    |     |          |
| 33 | 2   |    |    |    |    | 1   |    |     | 6   |     |     |    |    |    |     |            |    |     |          |
| 34 | 9   |    | 2  |    |    |     |    | 1   | 4   | 1   |     |    | 1  |    |     |            |    |     |          |
| 35 | 1   |    | 1  |    |    | 4   |    | 1   | 8   | 3   |     |    |    | 1  |     |            |    |     |          |
| 36 | 1   | 4  | 1  | 1  |    | 2   |    | 1   | 9   | 2   |     | 2  | 1  | 1  |     |            |    |     |          |
| 37 | 2   | 3  | 2  | 3  |    | 6   |    |     | 2   |     |     |    |    |    |     |            |    |     |          |
| 38 | 3   | 1  |    |    |    | 9   |    | 3   | 8   | 4   | 1   | 4  | 1  | 1  |     |            |    |     |          |
| 39 | 9   | 3  | 1  | 2  |    | 6   |    | 1   | 4   | 4   |     |    |    | 1  |     |            |    |     |          |
| 40 |     |    |    | 1  |    | 2   |    |     |     |     |     |    |    |    |     |            |    |     |          |
| 41 | 4   |    |    | 2  |    | 4   |    | 1   | 5   | 1   |     |    |    | 1  | 1   |            |    |     |          |
| 42 | 3   | 1  |    |    |    | 10  |    | 1   | 9   | 3   |     |    |    | 1  |     |            |    |     |          |
| 43 | 2   |    |    | 2  |    | 7   |    | 2   |     | 1   |     |    |    |    | 1   |            |    |     |          |
| 44 | 16  | 1  | 3  | 1  | 1  | 3   |    | 2   | 3   |     |     |    |    |    | 1   |            |    |     |          |
| 45 | 3   |    | 3  | 1  |    | 2   |    | 1   | 3   | 2   |     |    | 1  |    |     | 意→惡        |    | 1   |          |
| 46 | 15  |    | 3  | 1  |    | 7   |    | 3   | 2   | 3   |     |    |    |    | 1   |            |    |     |          |
| 47 | 11  | 1  | 6  | 1  | 1  | 6   |    |     | 25  |     |     |    |    |    |     |            |    |     |          |
| 48 | 11  |    | 1  | 1  |    |     |    | 3   | 3   |     |     |    | 1  |    |     |            | 進  |     |          |
| 49 | 3   | 1  |    |    |    |     |    | 7   | 9   | 1   | 1   | 2  |    | 8  |     |            |    |     |          |
| 50 | 1   | 1  | 2  | 2  |    | 1   |    |     | 7   |     | 2   |    | 1  | 1  |     |            |    |     |          |
| 51 | 2   |    |    | 1  |    | 1   |    | 3   | 3   | 2   | 1   | 1  |    |    |     |            |    |     |          |
| 52 | 2   | 2  |    |    | 6  | 5   |    | 2   | 1   |     |     |    |    |    |     |            |    |     |          |
| 53 |     |    | 1  |    |    |     |    | 1   | 3   | 1   |     |    |    |    |     |            |    |     |          |
| 54 | 9   | 1  | 1  |    |    | 3   |    |     | 2   | 7   |     |    |    |    |     |            |    |     |          |
| 55 | 7   | 3  | 3  | 2  |    | 3   |    | 1   | 4   | 2   |     |    |    |    |     | 利→而<br>方→於 |    |     |          |
| 56 | 1   | 2  | 1  |    |    | 4   |    |     | 3   | 1   | 3   |    |    |    |     | 利貞→亨利      |    |     |          |
| 57 | 3   |    | 2  | 1  |    | 1   |    | 6   | 4   | 3   |     |    | 1  |    | 1   |            |    |     |          |
| 58 | 5   | 1  | 1  | 1  |    | 2   |    | 1   | 3   | 1   |     |    |    |    | 1   | 畢→聖<br>聖→畢 |    |     |          |
| 59 | 22  |    | 1  |    |    | 4   |    | 2   | 2   |     |     |    | 1  |    |     |            | 辨  |     |          |
| 60 | 2   |    |    |    |    | 4   |    |     | 4   |     |     | 1  |    | 1  | 1   |            | 辨  | 3   |          |
| 61 | 6   | 1  |    |    |    | 10  |    | 3   | 10  | 4   |     |    |    |    |     |            |    |     |          |
| 62 | 8   |    |    |    | 1  | 3   |    | 5   | 7   |     |     |    |    |    |     |            |    |     |          |
| 63 | 19  | 5  |    | 3  |    | 3   |    | 8   | 11  | 1   |     |    |    |    |     |            |    |     |          |
| 64 | 31  | 1  | 1  |    |    | 16  | 1  | 2   | 21  | 3   |     | 2  | 2  | 2  |     | 不→應<br>應→不 |    |     |          |
| 65 |     |    |    |    |    | 3   |    |     | 7   |     |     | 1  | 3  | 1  |     |            |    |     |          |
| 합계 | 346 | 56 | 63 | 62 | 12 | 286 | 6  | 134 | 379 | 121 | 13  | 17 | 25 | 24 | 9   | 14         | 7  | 11  | 13       |
|    | 825 |    |    |    |    |     | 6  | 513 | 121 |     | 79  |    |    |    | 9   | 14         | 7  | 11  | 13       |

목판본의 교정에서는 획의 굵기·길이 수정, 끊어진 획 등 대체로 글자의 모양에 대한 교정이 가장 많다. 이에 비하여 금속활자 인쇄에서는 字形을 수정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조판된 활자 상태를 바로 잡는 것이다.

『주역전의대전』의 조판에서 가장 많은 수정의 대상이 된 부분은 활자의 높이와 수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글자의 인쇄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활자의 높낮이가 고르지 않아 흐리게 인쇄된 글자는 825자로 전체 교정내용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날개 활자의 수평과 주변 글자와의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흐리게 인쇄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다. 반면 주변 글자보다 높아서 진하게 인쇄된 글자는 6건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한 판에 식자가 완성되면 고르게를 이용하여 전체를 눌러 평평하게 하기 때문에 홀로 솟은 활자가 남아 있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흐리게 인쇄된 글자 중에서 글자 전체가 흐리게 찍힌 글자 즉 낮게 조판된 글자가 346자(42%)로 가장 많다. 또 활자가 평평하게 植字되지 않아 한쪽 부분이 흐리게 인쇄된 경우가 193자(23.3%)이며, 이외 인쇄가 고르지 못한 것이 286자(34.6%)가 확인된다.

활자가 좌우로 기울어서 수정을 지시한 부분이 다음으로 많아 513건(32%)이 확인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글자가 379자,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134자로 대체로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식자되어 있다. 또 상하 글자사이의 간격, 글자 좌우의 계선사이의 간격이 고르지 않아 수정지시 한 부분도 79자가 확인된다. 이 두 가지의 수정은 철우리 내에 활자를 정확하게 배열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전체 수정 중 28%(458건)를 차지한다.

이상의 수정내용을 통해 보면, 금속활자 조판에서 가장 많은 손이 가는 부분이 활자의 높이와 정확한 배열이며, 이 두 가지가 전체 수정의 78%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주역전의대전』은 宋·元·明代 학자들의 견해가 細註로 달려있어서 특히 小字 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大字보다 小字의 조판이 더 어려워 수정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자의 경우는 14건으로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범한 실수(燮 → 變), 음이

같이서(利 → 而), 자형이 비슷해서(意 → 惡), 좌우 또는 아래위의 글자 위치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글자 획에 먹이 묻쳐져 인쇄된 경우가 121자 확인되어, 사용한 활자의 손질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권1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권인 권24의 10장 판심부분을 보면, 화구에는 ‘說卦傳’으로 판심제는 ‘大學章句大全’으로 잘못 식자되어 있다. 아마 1793년 정조의 명으로 진행된 사서삼경의 간행이 이때 한창 진행 중이었고, 『대학장구대전』의 간행과 일부 혼돈이 있었던 듯하다.<sup>19)</sup> 판심에는 화구제가 빠진 곳도 종종 확인된다.

이외에 조판된 활자가 흔들려서 글자가 중첩되어 인쇄된 것이 9건, 탈자 7건 등이 수정 지시되어, 권1에만 대략 1,600여 글자에 대하여 교정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권1은 65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한 판의 인쇄를 위해 대략 재건에만 24글자의 조판 불량이 확인된 것이다. 권1만을 대상으로 조판상의 교정내용의 빈도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높낮이에 대한 수정을 지시한 부분이 825건으로 가장 많고, 활자가 좌우로 치우쳐 식자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수정 지시가 513건으로 두 번째로 많다. 교정내용별 그 빈도를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 표와 같다.

『周易傳義大全』 권1의 교정내용별 횟수

| 흐림  | 기움  | 먹묻침 | 치우침 | 오자 | 너덜이 | 흔들림 | 탈자 | 진함 | 미확인 |
|-----|-----|-----|-----|----|-----|-----|----|----|-----|
| 825 | 513 | 121 | 79  | 14 | 11  | 9   | 7  | 6  | 13  |

이 책이 전체 24권과 총목 1책을 포함해서 권1과 비슷한 수준의 교정이 지시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주역전의대전』의 再見에만 무려 40,000여 자에 대한 교정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초견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수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금속활자인쇄에서 조판의 어려움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의 특징이 다양한 종류의 인본을 신속하게 간행하는데 유용한

19) 『正祖實錄』 正祖 18년 1월 24일 “교서관이 활자(活字)로 찍은 삼경과 사서를 바쳤다. 이 책들은 계속된 초여름에 처음으로 인쇄를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인쇄가 끝난 것이다.”

인쇄방법이라는 것은 활자의 조판기술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교정쇄본과 완성본을 비교하면,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두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조는 역대 어느 왕보다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규장각을 중심으로 초계문신제도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서적의 출판을 통하여 문치에 앞장선 왕이다. 때문에 즉위기간 동안 왕실에서 간행된 인본들은 매우 정교하였다. 다음은 『주역전의대전』 일부의 교정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周易傳義大全』 교정전후 비교

|            |            |             |             |
|------------|------------|-------------|-------------|
|            |            |             |             |
| 권1 20장 교정전 | 권1 20장 교정후 | 권1 5장 교정전   | 권1 5장 교정후   |
|            |            |             |             |
| 권1 26장 교정전 | 권1 26장 교정후 | 권23 41장 교정전 | 권23 41장 교정후 |

『주역전의대전』의 교정쇄본과 완성본을 비교하면 전후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판의 인쇄를 위해서는 장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균자장의 감각에 의존한 높이와 수평 등의 식자는 시험인출시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노출되어 반복적인 교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금속활자 인본들이 정교하고 깨끗한 것은 인쇄장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 하겠다.

## 7. 결 론

조선이 건국된 후 활자의 주조는 1403년 계미자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여 조선 전대에 걸쳐 50여종의 활자가 주조되어 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속활자 인쇄술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활자의 주조와 조판에 관한 것이며 아울러 활자인쇄 장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속활자인쇄기술은 활자의 주조에 관심이 집중되어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조뿐만 아니라 조판 또한 인쇄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이며, 활자의 주조는 조판에 용이한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조판 인쇄를 담당하는 인쇄장인의 역할, 특히 활자인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균자장의 역할은 보다 중요한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 조판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모든 준비과정은 균자장의 역할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활자의 조판은 초기 계미자의 밀랍을 이용한 고착식 조판에서 갑인자 이후 밀랍대신 죽편을 이용하여 활자를 고정시킨 조립식조판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번 조판의 문제로 인한 인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선후기 정조년간에도 이같은 기록은 계속 확인된다. 가장 큰 원인은 활자모양의 불규칙함이다. 1793년 정유자로 간행한 『주역전의대전』 교정쇄본의 교정내용을 분석해보면, 조판교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활자의 높이가 일정치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로 전체 교정의 절반이상으로 확인되었

다. 즉 활자의 높이와 모양 등을 어느 정도 규격화하였다면 이같은 문제는 최소화 되지 않았을까한다. 조판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자의 규격화는 1795년 정리자의 주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는데, 『일성록』에는 “정리자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어 털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여, 이전의 활자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여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 배가 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활자인쇄는 1차적으로 조판에 적합한 활자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주조된 활자와 조판재료를 활용한 장인들이 제 기능이 발휘하였을 때 완벽한 인쇄가 가능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大典後續錄』, 『三淵集』, 『慵齋叢話』.  
청주고인쇄박물관. 『갑인자와 한글 금속활자』 결과보고서(2007).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시대 인쇄출판정책과 역사발전』 학술자료집(2007).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시대 중앙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학술자료집(2008).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시대 지방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학술자료집(2009) 8.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시대 한글 금속활자와 철활자』 결과보고서(2010).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전기 한국의 금속활자』 결과보고서(2008).  
청주고인쇄박물관. 『조선후기 한국의 금속활자』 결과보고서(2009).  
김성수. “壬辰字와 丁酉字의 복원을 위한 鑄造 및 組版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 고인쇄박물관, 2007.  
남권희. “證道歌字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 『서지학보』 제36집(2010).  
옥영정. “인쇄관청의 활자인쇄장인.”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